

[종합·국제]

北 “연 300만~400만t 중유 달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나흘째인 11일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접촉을 갖고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수석대표 회동을 열어 핵심 쟁점인 ‘대북 에너지 지원규모’를 놓고 집중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은 중국이 합의문 초안에 제시한 관련 핵시설의 ‘동결·폐쇄·봉인’을 수용하는 대가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보상조치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중유 50만t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200만kW의 전력에 해당하는 중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유는 300만~400만t이 필요하다.

이같은 북측의 요구에 대해 나머지 나라들은 북한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4일째...대북 에너지 지원규모 이견 팽팽 참가국들 “너무 많다” 北 설득...분담도 절충 나서

특히 의장국 중국은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생각하는 에너지 규모와 제공 속도 등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개막일인 8일과 9일 이틀동안 수석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쟁점인 에너지 제공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담 사흘째인 10일에는 수석대표간 회동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회동을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의 양자접촉 등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보상 내역의 골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합의문서에 포함될 5개 워킹그룹 가운데 하나인 ‘경제·에너지 지원 워킹그룹’을 한국이 주도하는 방안이 부상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워킹그룹은 나머지 5개국이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면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는 관련국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며 경제·에너지 지원 워킹그룹의 경우 어느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로 얻어지는 혜택은 물론 부담에 있어서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5개국의 ‘공동 부담’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만일 이런 문제가 현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수용

하느냐의 여부”라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에너지 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에너지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러시아 수석대표인 로슈코프 외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한 뒤 “러시아가 대북 상용조치로서의 에너지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대북 에너지 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필리핀 6,124쌍 동시 키스 6천124쌍의 필리핀 커플들이 10일 마닐라에서 열린 키스 기록 도전행사인 ‘로바팔루자(Lovapalooza)’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날 행사로 헝가리(5천875쌍)에 빼앗긴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되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 이뤄지나

한·미 FTA 7차협상 돌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막돼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외교통상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등 3대 핵심분야의 쟁점을 연계 처리하는 ‘빅딜’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 무역구제 양보해야 빅딜 가능’=공식화된 ‘빅딜’방안은 미국의 무역구제분야 양보수준에 맞춰 우리 측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연계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공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또 의약품분야에서는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숙고해왔다.

◇‘쌀, 쇠고기는 시한폭탄’=미국은 현재까지도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우리측은 쌀을 손대면 협상을 깨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FTA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쌀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미

국이 우리측에 뭔가 ‘큰 것’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3월말 타결여부 ‘안갯속’=일단 정부는 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으면 3월12일 전후로 8차 협상을 열어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뒤 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최종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우선 7차 협상이 성과를 내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그동안 현안이 됐던 쟁점 이외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 남아야 할 산이 많다. /이종태기자 jtlee@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유일한 흑인인 백악관 오바마 의원이 10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왼쪽) 힐러리 상원의원은 이날 ‘2008 대선의 풍향계’인 뉴햄프셔주를 10년만에 처음 방문,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악 독재자 北 김정일 2위

워싱턴 포스트가 주말에 발행하는 ‘퍼레이드’지는 10일 ‘세계 최악의 독재자’ 10인을 소개하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2위로 꼽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에 오른 것은 “핵무기 실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 탄압 때문”이라고 퍼레이드는 설명했다.

이 잡지는 김 위원장이 벌종이거나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훈련을 받은, 세상물정에 밝고 교활할 정치인”이라고 묘사하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김일성 부자가 따르는 실제 통치모델은 고대 유교주의”라고 소개했다.

독재자 10선 가운데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3위), 미얀마 군정 최고지도자인 탄 쉐 장군(6위),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7위) 등 부시 행정부가 백안시하는 독재 정권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아! 오바마냐!

美 민주 ‘대권경쟁’ 불붙었다

미국 민주당 대권경쟁의 ‘쌍두마차’인 힐러리아와 오바마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빅 매치’가 시작됐다.

백악관 오바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10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힐러리 클린턴(뉴욕) 상원의원은 같은 시간 2008년 대선의 풍향계인 뉴햄프셔주를 방문, 불꽃 경쟁의 서막을 올렸다.

◇오바마, ‘세대교체론’으로 승부수=오바마는 이날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출마준비위원

을 발표한 지 26일만이다.

올해 45세인 그는 자신의 고향 일리노이주(州) 스프링필드 광장에 운집한 수천명의 유권자 앞에서 “우리 세대가 이제 시대적 소명에 답할 때”라면서 이른바 ‘세대교체론’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힐러리 10년 만에 뉴햄프셔 방문=힐러리는 이날 뉴햄프셔주를 방문했다. 10년 만에 첫 방문이다. 유권자들은 힐러리가 지난 2002년 부시의 이라크전쟁 개전 때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집중 캐물어 힐러리를 곤혹스럽게 했다.

힐러리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만약 지금과 같은 정도의 군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당시 결구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들러 표현했다.

◇오바마 역전 가능할까=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남평 클린턴의 후광과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경륜 등을 배경으로 선거자금과 조직력 면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탓이다.

ABC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달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는 41%의 지지율로 오바마의 17%를 크게 앞섰고 그 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리엇 미사일·주한 미군기지 등

‘구글어스’ 사이트에 노출 논란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구글어스’(http://earth.google.com) 사이트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주한미군 기지 내 무기와 시설 모습이 그대로 담은 사진이 올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구글어스를 검색한 결과, 주한미군 동두천 기지(캠핑 케이시)와 오산 미 공군기지, 서울 용산기지, 우리 공군의 수원비행장을 정밀 촬영한 위성사진이 게재돼 있다.

수원비행장과 오산기지를 담은 사진에는 수십 개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전투기 및 격납고 등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들 사진에는 네티즌들이 특정 지점에 ‘patriot battery’(패트리엇포대), ‘A-10’ ‘F-16’ 등 기지 내 무기 및 시설 이름을 명기해 놓은 것은 물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좌표까지 표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레이어’(layer) 기능을 이용해 특정 네티즌이 새겨 넣은 지명 등 설명을 열어 볼 수 있다.

서울 용산기지를 촬영한 사진에도 주한미군 전문지인 성조지 사무실에 서부터 뺑뺑, 발전시설, 골프장, 서울 미국인학교(Seoul American School) 등 기지 내 곳곳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도교, 관측 사상 첫

‘눈 없는 겨울’ 전망

일본 수도 도쿄가 관측 사상 처음으로 ‘눈 없는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난동으로 올 겨울 유난히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도쿄에는 10일 현재까지 첫 눈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날 저녁 약간의 빗발이 비치기도 했지만 심야에도 기온이 영상 9도 정도에 머무는 바람에 눈이 내리지 못했다.

남은 겨울 동안 앞으로 도쿄에 눈이 내리더라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첫 눈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2007년 17주

공무원 시험 특강

고정지

중개사 특강

소수정태민

전남고시학원 022-5115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광주지역총원 02-671-4747, 672-4747 FAX:671-4747 06-671-4747, 671-4747

2007년 대통령 선거후담 수상기회, 2007년 “경제를 일으키는” 황금기 내릴 기회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2007년 최고의 신기술

“크립톤” 우수 최상 품질 자랑

080-701-7117